

책 작가, 나도 될 수 있다!

POD 방식으로 나만의 책 만들기

글. 김세훈 SBS 미디어IT팀



나만의 책을 갖는다는 것은

책 작가가 되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책이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런 책을 쓴다는 생각은 잘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막연하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쑥스럽기도 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쓴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조차 없었죠. 그러던 제가, 어느 순간 작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떤지, 책을 쓰면 어떤 게 좋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방송통신직 공무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방송통신직 공무원 기출 해설을 인터넷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무원 준비생 몇 분께서 이를 종이로 인쇄해서 보고 싶는데 제본해도 되겠냐는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를 본 제 여자친구는 그렇다면 아예 책으로 출판하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마침 여자친구는 주변에서 책을 내는 것을 본 경험이 있어, 저에게 책 출판이 생각보다 쉬움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책 출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소소한 액수일지라도 인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정식으로 책을 출판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제 책이 납본되어 보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제가 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되는 것이지요. 돈도 돈이지만 이 일이 저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정말 멋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바로 출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책 출판 방법

책을 출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획출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장벽이 높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출판사에서는 일단 일정 수량 이상의 책을 찍어내야 하는데, 만약 찍어낸 책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악성 재고가 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책의 상품성이 인정되어야 기회가 올 텐데, 저 같은 초보 작가에게 그런 기회가 올 리는 사실상 없었죠.

두 번째 방법은 자비출판입니다. 출판 과정에 드는 비용을 내가 낼 테니 책을 출간해달라고 출판사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인세가 높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상품성이 문제인데, 책 찍는 초기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갔는데 팔리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작가가 적자를 보게 됩니다. 책이 얼마나 팔릴지 적절히 추산한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가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제게는 매력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료의 납본 (Legal Deposit)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총체적 수집을 통하여 우리 기록문화유산의 후대전승에 기여합니다.

• 납본제도란?

- 도서관법 제 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를 포함)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 수정 증보판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합니다.
-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납본된 도서관자료를 국가문헌으로 영구 보존하여 후대전승은 물론, 대국민 자료이용 서비스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 1. 납본제도 소개

마지막 방법은 POD(Publish On Demand)라는 방법입니다. 주문을 하면 그에 맞는 영상을 제공하는 VOD와 마찬가지로, 주문하면 그때 책을 제작해서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최대 장점은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하는 주문량만큼 찍어내기 때문에, 판매액에서 인쇄비용과 수익 일부를 업체가 가져가면 되기에 미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인세가 좀 낮다는 점과 미리 책을 만들어두지 않고 주문 시에 책 제작에 들어가서 배송하기 때문에 실제로 책을 받아보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게는 POD가 가장 적합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비록 제 여자친구는 인세가 낮다는 점을 아쉬워했지만요). 이 글을 읽으시고 출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도 처음에는 POD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POD 출판 방법

방법을 정한 다음에는, 어느 업체를 통할 것인가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 다 비교하기는 힘들어서

저는 <부크크, www.bookk.co.kr>와 <교보문고 퍼플, pod.kyobobook.co.kr> 두 서비스를 선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부크크와 교보문고 퍼플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유통 채널입니다. 부크크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유명 인터넷 서점들을 통해서 책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제휴 업체들인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해서도 책을 판매할 수 있죠. 대신, 인세가 부크크 웹페이지 내에서 판매 시 흑백 35%, 컬러 15%지만 외부 인터넷서점 판매 시 흑백 15%, 컬러 10%입니다. 또한 부크크는 글쓰기 플랫폼인 브런치(brunch.co.kr)와 연계하여 책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한편, 교보문고 퍼플(PubPle)은 교보문고 웹페이지 내에서만 책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세가 20%로 부크크 외부 업체를 통한 구매보다는 높은 편이지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부크크 웹페이지 내에서 구매할 경우보다는 교보문고 웹페이지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교보문고 퍼플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림 2. 부크크 웹페이지



그림 3. 교보문고 퍼플 웹페이지

구분	부크크	교보문고
판형	46판, A4, A5, B5	A4, B5, 크라운판, 신국판, A5, A6
내지 재질	이라이트 80g(흑백), 백색모조 100g(컬러)	미색모조 80g, 미색모조 100g, 이라이트 80g, 스노우지 100g, 백색모조 100g
표지 재질	210g 무광, 250g 무광, 250g 유광	아트지 250g 무광, 아트지 250g 유광

표 1. 부크크와 교보문고 서비스 비교

이외에도 책 판형, 재질 등의 선택 옵션 차이가 있는데,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서비스와 책 사양을 결정하되, 이와 별개로 내용도 완성해야겠지요. 최종적으로는 PDF 결과물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흔히 쓰는 한글이나 워드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수식이 많이 들어가는 책을 썼기 때문에 Visual Studio Code 상에서 TeX 파일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PDF로 출력했습니다.

한편, 내용만 만들 게 아니라 책 표지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각 서비스상에서 주어진 기본 템플릿 표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돈을 내고 구입할 수도, 아니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자가구가 Illustrator를 사용하여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만들게 된다면 각 서비스가 제공하는 템플릿에 맞게 표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 페이지 두께, 판형 등은 당연히 고려해야 하며, 또한 각 서비스의 로고 등을 주어진 위치에 삽입하는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안내사항이 있으니 조건을 맞추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책 저작권 페이지를 내용 PDF에 삽입하고, 표지 앞뒷면을 각각 내지 처음과 끝에 추가하는 등의 자잘하게 손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책을 만드시면서 가이드를 읽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일 것 같아요. 반드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그림과 글꼴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가능하면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사용 범위상 문제가 없는 그림

을 사용하였고, 글꼴도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네이버 나눔글꼴, 구글/어도비 본고딕, 본명조, 한국출판인회의 KoPub 돋움, KoPub 바탕 등의 글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초본이 완성된 다음에는 원고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처음에 바로 승인되면 좋겠지만, 역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지 저는 서너 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수정을 거치고 나면 다음과 같이 판매가 승인되었다는 안내 메일이 옵니다.



그림 4. 판매 승인 메일

POD

무료배송

소독공제

2017-2021 공무원 7급 영어로온 전자책으로 디지털 해설집

ingyer ks 지음 | 퍼플 | 2021년 10월

【배송일정】 3월 8일 출고 예정

0.0 / 10

리뷰 0

★★★★★

10,600원

10,600원 [0%↓]

310원P

상세보기

POD

무료배송

소독공제

2017-2021 공무원 7급 영어로온 통신이론 해설집

ingyer ks 지음 | 퍼플 | 2021년 10월

【배송일정】 3월 8일 출고 예정

0.0 / 10

리뷰 0

★★★★★

10,500원

10,500원 [0%↓]

310원P

상세보기

POD

무료배송

소독공제

2017-2021 공무원 7급 영어로온 전기자기학 해설집

ingyer ks 지음 | 퍼플 | 2021년 10월

【배송일정】 3월 8일 출고 예정

0.0 / 10

리뷰 0

★★★★★

12,800원

12,800원 [0%↓]

380원P

상세보기

그림 5. 책 검색 결과

이 메일을 받고 나면 [그림 5]와 같이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이 되고, 드디어 책이 팔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보통 회사는 직원의 외부활동 가능 여부에 대해 사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판의 경우에 허용하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 승인을 거쳐서 출판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자책 만들기

Google Play

ingyer ks

도서

가격

2017-2021 공무원 7급 영어로온 전자책으로 디지털 해설집

2017-2021 공무원 7급 영어로온 통신이론 해설집

2017-2021 공무원 7급 영어로온 전기자기학 해설집

₩5,500 ₩5,850

₩5,500 ₩5,850

₩7,000 ₩6,300

그림 6. 구글 플레이 검색 결과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종이책을 만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전자책 출판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교보문고 퍼플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e퍼플(epubple.com)을 이용했습니다. 종이책 출판과 유사하게 몇 가지 안내사항을 따라서 제작을 진행하면 됩니다. 승인되면 여러 전자책 판매처를 통해서 만드신 책이 유통되게 되죠. 아래와 같이 구글 플레이에서도 확인되네요.

전자책 출판 시의 유의하실 점은, 이용하신 서비스 자체나 저의 경우와 같이 연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법적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출판권이라는 게 있어서 기존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되어서, 저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했습니다.

써 보니 좋은 점

가장 궁금하신 것은 그림 얼마나 벌었느냐겠지요. 저의 경우, 2022년 3월 초 기준으로 종이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수익이 발생했네요.

114 Broadcasting & Technology

요약본 | 상품별 상세

판매월	공급사	출판사	POD	합계	
2021-10	김세훈	퍼블	820,790	매출액	820,790
				정산액	165,240
2021-11	김세훈	퍼블	147,400	매출액	147,400
				정산액	29,680
2021-12	김세훈	퍼블	80,600	매출액	80,600
				정산액	16,120
2022-01	김세훈	퍼블	135,600	매출액	135,600
				정산액	27,120
2022-02	김세훈	퍼블	116,400	매출액	116,400
				정산액	23,680
합계				매출액	1,300,790
				정산액	261,840

그림 7. 종이책 판매 수익

그리고 전자책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보기		정산기간 ▼							
정산기간	판매기간	판매액	판매권	대여액	대여권	취소액	취소권	정산액	정산액(사업소득세3.3%)
2022.03	2022.01	67,500	10	0	0	0	0	13,500	13,054
2022.02	2021.12	40,000	6	1,550	2	6,500	1	7,010	6,779
2022.01	2021.11	33,000	5	10,800	2	6,500	1	7,135	6,900
2021.12	2021.10	6,500	1	5,200	1	0	0	2,340	2,263

그림 8. 전자책 판매 수익

보통 매월 치킨 두 마리 사 먹기도 어려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수익이 발생했네요(첫 달에는 꽤 들어오긴 했지만, 주위 분들에게서 사 주셔서 그런 것이고 저 자신도 10만 원어치 샀어요^^). 들어가는 노력 대비 얻어지는 것이 그리 크지 않아서, 기대를 많이 하신다면 실망도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후회하진 않는데요, 매일 판매량을 확인해 보면 실망할 때도 있지만 가끔 소액이나마 증가한 걸 보는 재미도 있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어딘가에 오래 보존될 형태의 작업물을 만들어내었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같이 표지 디자인을 하면서 여자친구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

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글을 쓰고, 고치고, 고민하면서 글 쓰는 연습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어떤 분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직접 동화를 만들어서 출간하시기도 했고, 반대로 자녀가 만든 동화를 출간하시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 자녀분들께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겠지요. 자녀뿐만 아니라, 책을 만들어서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아주 특색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저의 책 출판 경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방송기술인께서 자신만의 책 출판으로 제가 느꼈던 즐거움을 같이 느끼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